

단일종목 ETF 시대 열린다

삼성·하닉 등 2배 베팅 가능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레버리지 허용... ETF 경쟁력 제고
이르면 내달 22일 상품 상장 전망

국내 자본시장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대가 본격 개막한다. 기존 지수 기반 상품 중심이던 ETF 시장에서 벗어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에 직접 레버리지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시장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ETF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제도는 오는 4월 2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증권신고서 및 상장 심사를 거쳐 이르면 5월 22일부터 실제 상품이 상장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내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2배)' 도입이다. 그동안 국내 ETF는 분산투자 요건으로 인해 특정 종목 100% 투자 상품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동일 종목 투자 한도가 100%까지 확대되며 구조적 변화가 가능해졌다.

초기 도입 대상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다. 시가총액, 거래량, 파생시장 안정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ETF 시장에서도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집중 레버리지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Chat GPT로 생성한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 이미지.

이는 기존 코스피200 등 지수형 레버리지 ETF와 달리, 특정 기업의 주가 방향성에 직접 베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는 투자자는 지수 변동과 무관하게 해당 종목에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이 일반 ETF 대비 훨씬 높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레버리지 구조 특성상 손실도 배수로 확대될 수 있고, 변동성이 반복되는 구간에서는 '음의 복리 효과'로 장기 투자 시 손실이 누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시 기존 교육에 더해 추가 심화교육이 의무화되며, 1000만원 기본예탁금 요건도 적용된다. 또한 상품명에서도 'ETF' 표기를 제한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등의

위험 특성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제도 도입이 국내 ETF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미국·홍콩 등 해외 시장에서만 가능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가 국내에서도 가능해지면서, 자금 유출을 줄이고 투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투자 양극화 심화와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대형주에 자금이 집중될 경우, 시장 쏠림 현상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고수익·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에서, 단기 트레이딩 중심의 숙련된 투자자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정운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금융투자 민원 급증... 가상자산 1000% ↑

금감원 지난해 금융민원 12만8419건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 125.7% 증가

지난해 금융민원이 10% 넘게 증가하며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증권과 가상자산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금융투자 부문이 전체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은 12만8419건으로 전년(11만6338건) 대비 10.4% 증가했다. 금융상담과 상숙인 조회를 포함한 전체 접수 건수는 79만8220건으로 6.4% 늘었다.

민원 증가의 핵심은 금융투자 부문이었다. 금융투자 민원은 1만4944건으로 전년 대비 65.4% 급증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민원이 4491건으로 1000% 이상 폭증하며 전체 금융투자 민원의 30%를 차지했다. 증권(50.9%)과 함께 주요 민원 발생 축으로 떠올랐다.

보험 부문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

지했다. 보험 민원은 전체의 49.0%로 가장 컸으며, 손해보험(19.6% ↑)과 생명보험(12.0% ↑)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면부채 결정 관련 분쟁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은행과 중소서민 금융 민원은 각각 10.2%, 2.9% 감소했다. 다만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은 125.7% 급증하며 금융사고 리스크는 여전히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민원 증가에 대응해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분쟁 처리 과정에는 생성형 AI를 도입해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자체 소비자보호 역량을 높여 민원 발생 자체를 줄이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허정운 기자

KB증권, 임베디드 금융 비즈니스 고도화

SK플래닛 업무제휴 계약 체결

KB증권은 지난 17일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SK플래닛 사옥에서 SK플래닛과 '임베디드 금융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과 김교수 SK플래닛 사업본부장, 권현정 제휴사업그룹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API 연동 기반 서비스 고도화 및 공동 비즈니스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제휴를 계기로 서비스 구체화를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하고, 향후 다양한 공동 마케팅 및 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통해 SK플래닛의 생활 밀착형 플랫폼에 KB증권의 금융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연계함으로써,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이 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임베디드 금융'은 비금융 플랫폼 내에 금융 회사의 서비스를 결합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양사는 API 연동을 기



지난 17일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SK플래닛 사옥에서 열린 'KB증권 - SK플래닛 업무 제휴 체결식'에서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오른쪽)이 김교수 SK플래닛 사업본부장(왼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반으로 ▲플랫폼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 ▲사용자 중심 투자 서비스 구현 ▲데이터 기반 금융 경험 고도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손 그룹장은 "이번 업무 제휴를 통해 금융 서비스의 접점을 넓히고, 고객이 일상속에서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양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결합해 임베디드 금융 시장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제약·바이오기업, 줄줄이 상장폐지 기로

기술력 바탕 상장... 수익성 도마위
강화된 퇴출 요건에 업계 위기감 고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잇달아 상장폐지 기로에 서고 있다. 기술력으로 상장 문턱을 넘었던 기업들 역시 실적 부진과 강화된 퇴출 요건에 직면하면서, 바이오 업계 전반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지터블유바이텍, 파랩신, 웰바이오텍, 인트로메드, 제일바이오 등 다수의 제약·바이오 기업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바이오 기업 중 일부는 기술특례로 상장했으며, 상장 이후 실적 부진과 자본잠식이 이어지면서 퇴출을 겪고 있다.

상장폐지 절차가 본격화됐던 기업 중 제일바이오는 상장폐지 결정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숭고르기에 들어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횡령·배임 사실 공시 등을 이유로 제일바이오를 상장격성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지난 2월 23일을 최종 상장폐지 일을 통보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전했다.

더불어 엔케이맥스와 카이노스메드

는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삼천당제약의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논란도 제약·바이오 업계의 변수가 될 예정이다. 바이오 종목을 상장폐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가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삼천당제약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시장 신뢰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 오는 23일 삼천당제약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상장격성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바이오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수익성이다. 현재 코스닥은 연 매출액 30억원 미만, 법차손 50% 초과,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기술성장 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상장당해 포함해 매출요건 5년, 법차손 요건 3년을 각각 유예받는다.

더불어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바이오 기업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 요건의 경우, 올해 30억원에서 2029년 100억원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코스닥의 상장 유지 요건이나 매출액 요건 기간 등이 제약·바이오 산업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매출 실적을 중점으로 보수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있고, 바이오 기업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연구·개발(R&D) 기간, 수익 실현 기간이 긴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도 "신약 개발 회사들은 창업 후 상당 기간 동안 적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적자 상태로 상장한 회사들이 3~5년 내에 매출과 순이익을 얻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바이오 기업들의 상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장유지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공시 기준과 감독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엔데믹 이후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우후죽순 시장에 진입한 바이오 기업들을 숙여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로 기술특례 상장 기업 수는 2020년 25개에서 2021년 31개, 2022년 28개, 2023년 35개, 2024년 42개, 2025년 35개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글로벌TDF 시리즈, 10주년 특별 이벤트

삼성자산운용 매수 인증시 경품 제공

삼성자산운용은 대표적인 연금 솔루션 상품인 '삼성글로벌액티브적격타깃데이트펀드(TDF)'(이하 '삼성글로벌TDF') 시리즈가 출시 10년을 맞았다고 21일 밝혔다.

TDF는 생애주기에 맞춰 자산을 자동배분하는 펀드로, 삼성글로벌TDF는 은퇴 시점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자동 조절하는 자산배분 펀드다.

이 펀드는 2016년 4월 출시 이후 국내 연금 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견인하

며 퇴직연금 투자자들의 필수적인 자산 배분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은퇴 시점이 멀었을 때는 주식 등 성장 자산 비중을 높이고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채권 등 안전 자산 비중을 높여 수익을 지키는 독자적인 자산 배분 곡선(글라이드 패스)을 운용한다.

삼성자산운용은 삼성 TDF 출시 10주년을 기념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펀(Fun)ETF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매수 인증 등을 하면 푸짐한 경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하은 기자